

企業利益概念에 관한 經濟學 및 會計學의 考察

李 正 浩

.....<目 次>.....

- I. 序 言
- II. 經濟學과 會計學의 관계
- III. 價值의 經濟學
- IV. 價值論에 立脚한 B/S, P/L
- V. 價值論의 企業利益概念의 批判
- VI. 會計學의 利益概念
- VII. 結 言

I. 序 言

會計學의 本質에 關한 論議는 學者間에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이지만 그동안 學界에서 論議된 諸理論을 綜合하여 보면 會計學의 中心課題가 企業의 利益(income, profit)과 一聯의 關聯性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會計學의 理論的 構造를 定立하려고 試圖하였던 「리틀톤」(A.C. Littleton)은 “會計로 하여금 다른 모든 數量的 分析方法과는 다른 것으로 만드는 어떤 基本的 概念이 있어야 하며 會計의 特徵인 對象 影響 效果 目的을 한층 잘 表現하는 이른바 ‘中心的 課題’가 存在해야 할 것”⁽¹⁾을 命題로 하고 會計學의 中心課題(center of gravity)를 ‘利益’(income)에서 求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리틀톤」은 「레드필드」(John Redfield)의 “自然科學分野든 哲學的 分野든 間에 모든 基本的研究는 그 自體의 分野에 屬해 있는 定義할 수 없는 적어도 하나의 固有觀念에서 出發하고 있다……”⁽²⁾는 말을 인용하면서 모든 基礎的 學問이 가지고 있는 中心課題가 있음을 제시하고⁽³⁾ 會計學의 그것으로서 ‘利益’을 내세우고 이를

筆者：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附設 韓國經營研究所 研究員。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助教授。

(1) A.C. Littleton; “Structure of Accounting theory”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Monograph*, No. 5, 1953, p.18.

(2) Ibid., p.18.

(3) Ibid., p.22. 「리틀톤」은 모든 基礎科學의 中心課題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Examples of characteristic notions of this sort include: for arithmetic, number; for geometry point; for physics, force; for astronomy space; for biology, life; for psychology, consciousness; for logic, thinking; for ethics goodness; for esthetics, beauty; for music, consonance; for law, justice; for government, equality; for economics, values; for accounting, _____?

基礎로 한 그의 假說을 다음과 같이 表示하고 있다. “信賴할 수 있는 期間的 純利益을 決定하기 위한 一般的 要求에 의해서 損益計算書가 企業會計上의 가장 重要한 成果가 된다” (That the extensive need for dependable determinations of periodic net income makes the statement the most important product of enterprise accounting) 이와같이 近代會計理論은 企業利益을 中心으로 한 그의 評價 測定問題로부터 出發하여 最終的 報告에 이르기까지 企業의 損益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近代 會計學의 傾向이 從來의 貸借對照表 中心의 會計理論에서 損益計算을 中心으로 한 會計理論으로 く준한 移行過程을 거쳐 發展해 온 것만 보아도 企業利益의 重要性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重要한 損益의 測定에 있어서 企業의 利益을 把握한다고 하는 것은 會計學의 다른 어떤 領域보다도 複雜하고 難解한 分野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利益의 概念에 대한 論議는 종래 會計學者와 經濟學者間에 意見의 對立을 보고 있었다. 즉 會計學者들은 經濟學者들의 企業의 利益concept이 理想論的인 矛盾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現實的適應ability이 없는 것으로 認識하고 있는가 하면 經濟學者들이 보는 會計學의 利益concept은 极히 機械的일뿐만 아니라 健全한 理論的 背景이 뒷받침하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非難하고 있다.

여하튼 實際問題로서 利益은 測定의 問題이며 이 測定問題는 利益concept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相異한 利益concept에서 相異한 測定技術이 나타남은 말할 必要도 없다.

따라서 本 論文은 經濟學의 利益concept과 會計學에서 말하는 企業利益concept에 관한 本質的 差異點이 어디서 나타나는가를 解明하는 동시에 아직 많은 問題點을 内包하고 있는 會計學의 利益測定 問題에 관한 앞으로의 發展에 취하여야 할 會計學의 立場을 더욱 明白히 하는데 있다.

II. 經濟學과 會計學의 關係

廣義의 經濟學은 人間의 富의 獲得과 그의 消費活動을 研究對象으로 하고 있는 學問이라고 볼수 있다. 이와같은 經濟活動은 國民經濟 全般을 그의 研究對象으로 하고 있는 互視經濟學(macroeconomics)의 接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國民經濟 全般을 構成하는 個別經濟單位를 中心으로 한 微視經濟學(microeconomics)의 接近을 하는 경우의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다.

이와같은 人間의 經濟活動에서 會計學이 擔當하고 있는 重要한 役割은 어떤 經濟單位의 貨幣로 表示된 情報를 蒐集 分類 整理 要約하는 問題를 取扱하고 있다. 따라서 經濟學이

巨視經濟學과 微視經濟學의 큰 두 領域으로 分類하여 把握하는 限 經濟活動의 記錄 報告하는 任務를 擔當하고 있는 會計學의 領域도 自然 이에 따라 巨視會計學(macro-accounting) 과 微視會計學(micro-accounting)의 두가지로 區別하여 認識할 必要가 있다.⁽⁴⁾ 이 경우 巨視會計學이 取扱하는 領域으로서는 國民所得會計(national income-acconunting) 投入產出會計(input-output-acconunting) 貨幣流通會計(money-flow accounting) 및 國際收支會計(balance of payment accounting)로 分類할 수 있다. 또한 微視會計學의 領域으로서는 企業會計(business accounting) 政府會計(government accounting) 및 家計會計(household)로 區別되고 企業會計는 다시 財務會計(financial accounting)와 管理 및 原價會計(managerial and cost accounting)로 區別된다. 그러나 우리가一般的 意味에서 會計라고 하면 生產經濟單位인 企業이라고 하는 實體(entity)의 會計的情報의 蒐集 分類 解釋하는 企業會計를 말하게 된다. 여하튼 微視經濟學에서는 企業을 對象으로한 價格 生產 資本評價 및 利潤등을 重要한 研究課題로 하고 있으며 會計學에서는 企業을 對象으로한 經濟計數의 測定과 解釋이라고 하는 實質的問題를 다루고 있음을 볼때 經濟學과 會計學은 다같이 企業이라고 하는 實體를 共同의 研究對象으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여기에서 會計學과 經濟學은 密接한 關聯性을 갖게 되며 相互 協助的關係에서 會計學을 經濟學에 어떤 理論的「모델」을 形成하는데 必要한 情報를 提供하여 現實的으로 어떤 意見決定過程에 重要한 기여를 하게 된다.

1966年에 美國會計學會(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A.A.)에서 그의 50週年을 記念하기 위하여 發表된 '會計의 基本理論에 관한 意見書'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에 나타난 會計學의 目的是 위에서 본 會計學과 經濟學의 相互 關聯性을 더욱 增

(4) Louis Goldberg;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Accounting*;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65, pp.6~9.

Richard Mattesich; "Towards a General and Axiomatic Foundation of Accountancy", *Accounting Research*, October 1957, p.331.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of accounting systems has been proposed:

Monetary Accounting

 Micro-accounting

 Business Accounting, Managerial and Cost Accounting

 Government Accounting

 Household Accounting

Macro-accounting

 National Income Accounting

 Input-output Accounting

 Money-flow Accounting

 Balance of Payments Accounting

固하게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 여기에 나타난 會計學의 第 1의 目的은 “稀少한 諸資源을 使用하는데 意思決定을 하며……”⁽⁵⁾ 決定的인 意思決定問題를 立證하는 現實의이고 實質的問題를 重要視하고 있다. 이것은 會計學이 종래의 財務會計에 그쳤던 경우 보다는 近代會計學의 二大主流를 形成하고 있는 管理會計學(management accounting)의 成立이 漸次 體系化되고 그의 姿態를 浮刻시키면서 부터 企業의 意思決定을 위한 會計의 重要性은 더욱 더 堅固한 立場에 서게 된것이다. 아직 管理會計學의 學問的體系가 未完成段階에 있지만 管理會計의 出現은 그間 經濟學과 會計學이 상당히 遊離된 領域에서 獨自의인 姿態를 지켜오던 距離感을 훨씬 좁혀 經濟學과 會計學의 接近은 한층 密接해진 감을 주고 있다.

이와같은 經濟學과 會計學의 相互接近은 적어도 다음 두가지의 測定的인 側面에서 共通的인 廣場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 企業의 純利益(net income)과 企業의 財政狀態를 決定하는 問題가 바로 그것이다. 會計學에서 말하는 純利益은 經濟學에서 말하는 利潤(profit)과 類似한 意味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財政狀態(financial position)는 經濟學의 富(wealth) 또는 資本價值(capital value)와 類似性을 가지고 있다.⁽⁶⁾ 이와같이 類似한 共通問題를 共同의 研究對象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間의 經濟學과 會計學은 利益과 富의 測定에 관한 相異한 路線을 걸어왔다.

經濟學과 會計學이 相互 調和를 이루지 못하고 相異한 路線을 밟아 오게된 重要한 要因은 첫째로 經濟理論에서의 企業의 意思決定問題를 理解하는데 있어 未來指向的 態度로 임하였고 이 反面에 會計理論에서는 이것을 過去指向的 立場에서 把握하려는데서 나타난 結果라고 볼수 있다. 이와같은 것을 主張할 만한 實證的인 例로서는 經濟學에서 利潤이라고 하면 販賣收益이 製品의 生產 및 販賣에 所要된 原價를 現在의 原價(current costs)를 超過하는 것으로 把握하는데 反해서 會計學에서 말하는 利益은 收益에서 製品의 生產 및 販賣에 所要된 過去의 原價(past costs)를 差減한것을 積得된것으로 보았다. 이와같은 差異의 根本原因是 經濟學에서는 恒常 未來의 推定에 興味를 가지고 있는 反面에 會計學에서는

(5) A.A.A.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66. p.4.
여기에서 말하는 會計學의 目的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he objectives of accounting are to provide information for the following purposes:

1. Making decisions concerning the use of limited resources,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of crucial decision areas, and determination of objectives and goals.
2. Effectively directing and controlling an organization'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3. Maintaining and reporting on the custodianship of resources.
4. Facilitating social functions and controls.

(6) D.A. Corbin; Accounting and Economic Decision, New York, 1964. pp. 223~243.

未來의 推定보다는 現實的으로 立證可能한 歷史的計數(historical figures)에 更 重要性을 두고있기 때문이다.

앞서 본 바와같이 經濟學이나 會計學이 다같이 企業이란것을 그의 研究對象으로하고 있고 그의 어떤 領域에서는 다같이 共同의 課題 즉 利益 利潤의 追求와 富의 增大를 위한努力이 있다고 하면 그의 測定問題에 있어서도 相互異質의인 것이어서는 안되며 언젠가는 統一된 形態로서 一元化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現段階에서 統一的인 結論을 얻지 못하고 있는 會計學과 經濟學의 利益概念에 관하여 「코-빈」(D.A. Corbin) 教授가 主張하는 會計學의 立場에서 이를 分析하고 그 原因을 찾아 보기로 한다.⁽⁷⁾

III. 價值의 經濟學

經濟學에서 말할때 어떤 企業 또는 어떤 特定人에 대한 物品의 價值는 그 企業 또는 特定人이 그 物品에 대하여 支給하려고 하는 金額에 該當한다고 한다. 따라서 어떤 商品에 대한 市場價格이 그商品으로부터 享有的 價值보다 높다고 하면 潛在的購買力を 가지고 있는 者는 그商品의 購入을 抛棄할 것이며 反對로 어떤商品에 대한 市場價格이 價值보다 낮은것으로 表示된다고 하면 이를 購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價值는 그商品이 使用될 用度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예로서 만일 어떤商品이 個人的消費에 使用될 것이라고 하면 그商品의 價值는 그商品을 購入하려고 하는 潛在的購買力を 갖인 者의 그商品으로부터 얻은 滿足額(amount of satisfaction)에 따라 달라진다. 이 경우에 價值測定을 明確하게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商品을 一定金額을 支給하고 購入하지 안했다고 하는 경우 그商品의 價值는 그金額만큼의 滿足을 充足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은 分明한 사실이다.

市場價格이 存在하는 경우 消費者財의 價值는 個人的選好性, 個人的所得 및 其他 諸要因으로부터 나타나는 欲望의 主觀的判斷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 企業에 있어서 資產의 價值는 ① 企業外部에 販賣可能하다고 하는 事實(예, 商品) ② 企業外部에 販賣할商品을 製造하는데 必要한것(예, 機械) ③ 企業의 營業活動을 향에 있어 原價를 節約할 수 있는것(예, 計算機)에 따라 左右된다. 따라서 企業이 일반적으로 財貨와 用役을 販賣 또는 使用함으로서 期待되는 收益을 올리기 위해서 만이 購入한다고 하면 經濟學의 意味에서 볼때 하나하나의 購買活動으로부터 損失(loss)이나 또는 利得(gain)이 나타나게

(7) Ibid, pp.223~243,

된다. 이때 損失이나 利得은 資產의 購買價格과 同資產을 앞으로 販賣한다던가 또는 營業活動을 위해서 使用함으로서 얻을수 있다고 期待하는 未來의 收入價值(value of future receipts)의 差額과 同一한 것이 된다.⁽⁸⁾

以上과 같은 經濟學的 價值概念을 企業이 所有하고 있는 資產에 적용하여 그 概念을 規定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表現할 수 있다. 즉 資產은 稀少性이 있고 또 그 資產의 所有者에게 未來에 用役을 提供할 수 있는 用役潛在力(service potential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價值를 가지고 있다.⁽⁹⁾ 여기에서 重要한 問題는 그 資產이 未來에 產出할 用役價值을 測定하는 것이며 그 資產의 價值를 測定하기 위하여 資產의 未來用役(future services)에 대한 貨幣的 價值가 決定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每 會計期末에 實施하게 되는 財政狀態를 合理的으로 確定하는 會計作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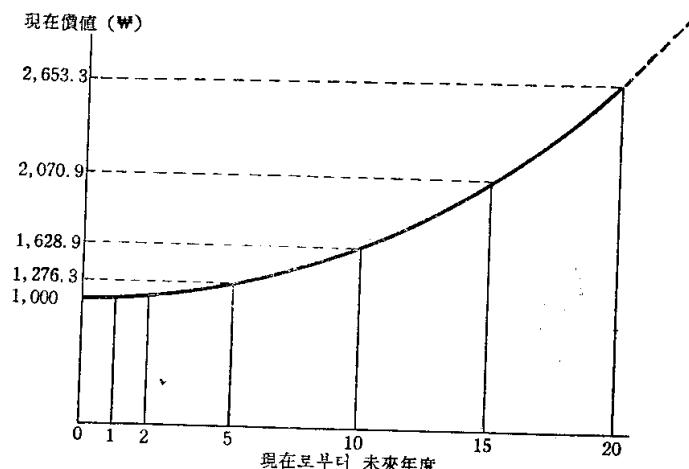
經濟理論에서 資產價值란 “全 未來所得의 流入을 現在價值로 割引한 總計”(The asset's value is the sum of the present values of the entire future income stream.)라고 할 수 있다. 그 理由는 現在 資產을 獲得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支出이 未來의 一定期間 동안에 收入될 貨幣的 價值가 增加할 것이라는 期待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의 資產價值가 未來에 流入될 價值보다 적기 때문이다. 즉 餘他의 條件이 一定한 한 現在의 一定 貨幣가 現在로 부터 一定期間以後의 同一한 一定貨幣보다 價值가 있다. 이와같이 期間의 變動에 따른 貨幣價值가 變動하는 理由로는 첫째 現在 所有하고 있는 貨幣는 그보다 價值 있는 貨幣로 使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다른 또하나의 理由로서는 未來는 不確實하다는데 있다. 다른 모든 條件이 一定하다고 하면 期間이 길면 길수록 事態의 變動이 나타날 可能性은 많으며 그 最初의 貨幣價值을 回收할 수 있는 機會는 稀薄해진다. 그러므로 未來의 豫想貨幣收入額이 現在 얼마의 貨幣價值와 等價關係에 있는가를 알 必要가 있으며 이 「메카니즘」을 우리는 利子論에서 찾을수 있다.

利子率에 의한 現在價值(present value)와 未來價值(future value)와의 關係를 보면 다음 圖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1,000의 投資가 5%의 利子率로 1年後에 ₩1,050이 되고 2年後에 ₩1,102.5으로 增加하여 급기야 20年後에는 ₩2,653.3으로 增加함을 알수 있다.

(8) M.J. Gordon and G. Shillinglaw; *Accounting -a management approach-*, (3rd edition, Richard D. Irwin, Inc., 1964), pp.238~239.

(9)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Preceding statements and Supplements*”, (columbus: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57), pp.3~4. 資產의 用役潛在力에 관해서는拙稿『外部報告를 위한 直接原價計算의 問題點』(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刊 經濟論集 第V卷 第1號 1966年 3月)을 參考.

이것은 즉 20 年後의 ₩2,653.3 的 貨幣價值는 現在의 ₩1,000 과 同一한 價值를 갖는것을 意味하며 같은 條件하에서 未來의 ₩2,653.3에 대한 ₩1,000 이 現在價值(present value) 또는 割引된 價值(discounted value)가 된다. (10)



이와같이 利子率에 의한 價值測定方法에 의하여 어떤 特定資產의 現在價值 또는 割引된 價值를 알기 위해서는 그 特定資產이 未來의 每期에 產出해 될 利益額을 決定하고 다음에 얼마의 利子率로 同資產이 積得할 것인가를 決定한 뒤에 未來의 每期利益을 現在價值로 割引하여 求하게 된다. 그러므로 資產價值라고 하면 全 未來利益의 流入額을 現在價值로 한 總合計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價值의 測定尺度가 되는 貨幣價值는 不斷히 變動하고 있다. 이와같은 貨幣價值가 變動하는 경우에 名目的인 貨幣價值는 그 價值尺度로서의 機能은 瘦瘠되고 만다. 이와같이 貨幣價值가 變動하는 經濟環境에서 各期마다 相異한 未來所得의 流入을 同一한 測定基準에서 計算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經濟學에서는 同一한 購買力を 갖인 貨幣로 未來所得의 흐름을 測定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貨幣價值의 變動에서 오는 影響을 除去하고 統一된 貨幣單位로서 實質所得(real income)을 求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今年度의 所得흐름이 ₩1,000 이고 明年度의 所得흐름이 名目上의 貨幣價值로 ₩3,000 이라고 하니 이 一年 동안의 物價水準이 倍로 增加하여 相對的인 貨幣의 實質價值를 저락시킬 것이豫想된다고 하면 第1次年度(今年度)의 統一貨幣價值로 測定된 所得의 흐름은 今年度의 ₩1,000 과

(10) D.A. Corbin; *Accounting and Economic Decision*, 1964, p.224.

다음 年度의 ₩ 1,500(₩ 3,000 × 1/2)이 될 것이다.

이와같은 資產評價方法은 企業이 所有하고 있는 個個의 資產項目에 따라 個別的으로 그所得의 흐름을 測定할 수 있지만 全企業의 價值를 類似한 方法에 의해서 즉 未來의 現金의 所得흐름을 割引하는 方法에 의해 求할 수가 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理解하기 위하여 이를 說明하는데 適合한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예로서 어떤 企業이 賣渡될 경우 그 企業의 40年間 年平均利益이 ₩ 48,000이고 이에 相應하는 割引率이 16%라고 하면 그 企業의 現在價值는 ₩ 299,232(₩ 48,000 × 6.234)이 된다. 이경우 6.234는 ₩ 1을 16%의 利子로 40年間 年金計算을 하고 이를 다시 現在價值로 換算한 金額이 된다. 이 6.234를 年金現在價值率(the present value rate of annuity)라고하여 다음의 公式 $\frac{1}{(1+r)^n}$ 에 따라 作成한 年金現在價值率表를 使用하여 쉽게 求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大部分의 企業이 繼續企業(going concern)의 前提에서 運營되고 있고 따라서 企業은 恒久的인 生命力を 가지고 있는 것이며 企業의 利益도 永續的으로 나타난다고 보지 않을수 없다. 이 경우에 利益을 利子率로 나눈(N.I. ÷ r) '收益의 資本化' (capitalization of earnings) 公式을 使用하여 ₩ 48,000의 年平均利益을 恒久的으로 나타내는 企業의 價值는 ₩ 48,000 ÷ 0.16 = ₩ 300,0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 48,000은 ₩ 300,000의 投資額을 最初의 그대로 維持하면서 每年 引出하여 使用할 수 있는 金額이 되는 것이다.

以上에서 보아온 企業의 價值는 마치 그 企業全體가 하나의 資產인양으로 하여 評價한 것이다. 따라서 그 企業의 價值는 未來의豫想利益의 流入을 現在價值로 하여 決定된 것이다. 그러나 企業의 價值를 決定하는 것은 이상에서 본바와 같은 企業全體를 하나의 資產(單位)으로 보고 그것의 現在價值를 求하는 方法 이외에 個個의 資產을 同一한 方法에 의하여 現在價值를 求하고 個個의 負債를 現在價值로 評價하여 資產總額에서 負債總額을 差減하는 方法으로 企業의 價值를 求할수도 있다. 結果는 어느것이나 同一하여야 함은 말할必要도 없다.(이에 대한 問題點은 다음에 說明함)

IV. 價值論에 立脚한 B/S 및 P/L

貨幣價值가 安定되어 있고 또 物價水準이 變動하지 않는 經濟條件을 假想하다고 하면 企業의 利益은 企業의 資產 및 負債에 以上에서 본 經濟學的 價值理論을 적용하여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를 作成할 수 있다. 즉 企業의 純利益은 一定期間동안 企業의 所有者가

投資한 附加的인 追加投資分을 除去하고 난뒤에 企業의 期初價值와 期末價值와의 差額이 企業의 純利益이 된다. 이 純利益이 企業의 所有者에게 配當金으로 配當할 수 있는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서 만일 企業의 原初的 投下資本을 害하지 않고 最初의 그대로 維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純利益이 企業의 所有者가 一定期間동안(會計期間)에 이루어 놓은 '富' (wealth)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價值論의 立場에서 企業의 利益은 理解한다는 것은 理論的으로 正確하고 理解하기도 용이하나 이 企業利益을 計算하기 위하여 資產과 負債를 經濟學的 價值論에 立腳하여 適當하게 評價한다는 것은 至難한 問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앞서 본 바 있는 企業의 資產이 未來의 每期에 產出해낼 利益額을 求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同 資產이 얼마의 利率로서 稱得할 것이냐 하는 問題들이 經濟社會의 不確實性(uncertainty)과 結付되어 있을 경우에 評價問題는 至難한 問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經濟社會의 不確實性과 結付된 複雜한 諸般問題點들이 除去되고 價值論의 立場에서 考察한 資產 負債의 評價가 合理的으로 이루어 질수 있다고 하면 企業의 純利益은 용이하게 求할 수 있다. 즉 이때의 企業의 純利益은 總收益에서 總費用을 差減하는 損益法의 計算過程을 거쳐 純利益을 決定할 수 있는것은 會計學의 損益計算書에서 企業의 純利益를 求하는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또한 資產과 負債는 收益과 費用이 記載되는 時點의 價值로 評價함으로서 損益計算書에 나타나는 企業의 純利益은 貸借對照表의 資產 및 負債를 評價하여 決定하게 되는 純利益과 同一하게 된다.

이와같은 損益計算書와 貸借對照表의 關係는 다음의 簡單한 例에서 더욱明白해 진다.

	資產	-	負債	=	資本	
期初殘額	₩ 50,000,000		₩ 10,000,000	=	₩ 40,000,000	—
當期收益	₩ +10,000,000			=	₩ +10,000,000	損益 計算書
當期費用	₩ - 4,000,000		₩ + 2,000,000	=	₩ - 6,000,000	貸借 對照 表
期末殘額	₩ 56,000,000		₩ 12,000,000	=	₩ 44,000,000	—

營業活動期間에 所有者的 追加投資가 없고 또한 引出된 金額도 없다는 것을 假定한 上例에서 損益計算書上의 ₩ 10,000,000에서 ₩ 6,000,000의 費用을 差減한 ₩ 4,000,000의 純利益은 期末資本 ₩ 44,000,000에서 期初資本인 ₩ 40,000,000을 差減한 純利益과 同一한 金額이 된다. 上例에서 만일 期末에 同企業이 갖는 資產을 實際와는 다르게 評價하였다고 하면 損益計算書上의 純利益이나 貸借對照表上의 純利益은 正確性을 喪失하게 되고 만다.

지금까지 觀察한 經濟學의 意味로서의 企業利益은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의 立場에
서 다음과같이 要約하여 말할수 있다.

첫째 貸借對照表에 表示되는 企業利益은 營利追求活動에서 나타나는 富의 增大(純資本의
增加)로 볼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서 富라고 하는것은 現在價值(current value)로 測定表
示된 것이 된다.

둘째 損益計算書의 側面에서 企業利益을 觀察하면 이것은 *當座收益(current revenues)과
收益을 獲得하기 위하여 消費된 用役의 當座費用(current costs)을 差減한 差額이다.

V. 價值論的 企業利益概念의 批判

지금까지는 經濟學의 價值論을 企業利益測定의 道具로 사용하여 資產의 未來豫想收入에
대한 現在價值를 求하여 企業利益을 測定하는 方法에 대하여 觀察하였다. 이와같은 企業
利益概念은 論理的으로 一貫性이 있으며 堅固한 理論的 背景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그러므로 會計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經濟學에 있어서도 깊은 造詣를 가지고
있는 「캔닝」(J.B. Canning)과 같은 教授는 每會計期間의 期初 및 期末에 企業이 가지는
各各의 資產 및 負債를 直接 評價 함으로서 企業의 純利益을 正確하게 求할 수 있다고 主
張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같이 論理的으로 秩序整然한 經濟學의 利益concept을 會計學에서 援用하지 않
는 理由는 어디 있는 것인가? 會計學에서 經濟學의 利益concept을 反對하는 理由를 이곳에
서 간단히 考察해 보기로 한다.

(1) 不確實性과 客觀性

오랫동안 會計學의 根幹을 이루고 있는 會計原則에서는 客觀性(objectivity)을 重視하고
있다. 「무닛즈」(M. Moonitz)教授의 會計研究(Accounting Reserch Study) 第1號의 強制
的規定(Imperatives) C-2에서 客觀性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Changes
in assets and liabilities, and the related effects(if any) on revenues, expenses, retained
earnings, and the like, should not give formal recognition in the accounts earlier than the
point of time at which they can be measured in objective terms".⁽¹²⁾

(11) 이것은 複利計算公式 $F_n = P(1+r)^n$ 으로 求할 수 있다. 이곳에서 F_n =未來의 收入金額, P =現
在의 投入額; r =利子率, n =期間.

(12) M. Moonitz, "The Basic Postulates of Accounting," Accounting Research Study, No.1, (New
York: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961), p.53.

이와같은客觀性을重視하는會計學은現實的環境의不確定性과密接한關係를가지고있다. 즉未來에대한確實性(certainty)이保障된經濟的環境하에서는富및富의增減은資產의未來交換價值에의하여測定할수있다. 앞서觀察한바와같이總合概念으로서의諸資產및諸負債는割引된未來의交換價值로測定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우리가살고있는世界는極度의不確定性(uncertainty)과未知의複雜性으로充滿되어있다. 이와같이不確定한未知의world에서나타나는不確定한交換價值에立脚하여算出해낸現在의推定值는信憑性이없는數值에不過하고말게된다.信憑性이없는資料에立脚한經營의意思決定은그릇된結果를가져오기쉬우며意思決定者에提示된資料가信憑性이없다는것이判明되게되면그資料는意思決定에重要한役割을하지못하고만다.

이와같은理由에서最善의信憑性있는資料를求한다고하는것은무엇보다도重要하다. 일찍이統計學에서는이信憑性을檢證하는方法을發展시켜意思決定過程에서주어진資料의信憑度를測定하고있다. 그러나會計學에서는아직資料의信憑性을測定하는method을development시키지못하고있으며다만會計資料의信憑性을測定하는測定手段으로‘客觀性’(objectivity)을그基準으로삼고있다. 이客觀性에立脚한事物의判斷은獨立的인位置에서도立證可能하며또한會計上의個人的感情이나判斷에影響을받지않고確證될수있다. 따라서過去의去來價格이나現在의交換價格또는契約價格등이不確定한未來의交換價格보다는훨씬確實한客觀性을가진價格이라고볼수있다. 그러므로會計學에서는企業利益의測定基準으로客觀性있는過去의價格인歷史的原價를사용하게된다.

(2)個體와全體와의關係

經濟學의利益概念에 대하여 다른하나의深刻한反撥은資產個個의價值와이것이企業이라고하는하나의實體를構成하고있을때의그企業의價值와는다르다고하는데있다. 다시말하면앞서考察한企業의價值는個個資產의現在價值總額에서負債總額을差減하는method으로算出하던가또는企業全體의未來所得의流入을現在價值로換算하여求할수있음은앞서考察한바와같이理論적으로는一致되어야할것이나實證의in問題에있어서는兩方法에서求한解答이一致되지않는다.⁽¹³⁾ 이것을說明하기위한아주簡單

(13) M.J. Gordon & G. Shillinglow; *op. cit.*, p.252. For the most part,.....a company's assets derive their value from their place as part of an intergrated whole. Taken by itself, any one such asset has little or no value.....the future receipts it would produce are negligible.

The asset is therefore worth no more than it would if it were sold at auction. Generally, the amount that can be obtained by selling the assets off individually is far less than their value as part of a going concern that has built up an organization, personnel, products, markets, and the other intangible ingredients of a profitable company.

한 예를 들어보기로 하다. 첫째 個個 資產의 現在價值를 企業의 現金 外上賣出金 在庫資產 工場建物 設備등의 現在價值와 모든 負債의 現在價值를 10%의 利率을 適用하여 現在價值로 換算한 資產總額에서 現在價值로 換算한 負債總額을 差減한 結果 ₩ 500,000 의 價值를 갖는 企業이 되었다는 것을 確認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다음에 企業의 未來年平均豫想利益 ₩ 60,000 을 위와같은 比率인 10%의 利率로 割引하여 ₩ 600,000 이 되었다고 하면 個個의 資產 負債를 評價하여 얻는 方法에 의한 ₩ 500,000 과 全體企業의 評價方法에 의하여 얻은 ₩ 600,000 과의 差額인 ₩ 100,000 은 어떤 理由에서 나타난 것일까? 이것은 個個의 資產이 集合하여 하나의 企業이라는 實體를 形成하였을 경우에 나타날수 있는 營業權(goodwill) 즉 正常的인 超過收益力を 加算하지 않은데 있다. 그러므로 資產 負債를 直接評價하는 경우에는 營業權의 價值를 包含하여야 하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企業全體의 未來에 대한 營業權의 收益力を 測定해 내야하는 問題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實務上 不可能한 問題라고 할수 있다.

(3) 間接評價方法과 그 批判

「캔닝」(J.B. Canning)教授도 지금까지 說明한 資產의 直接評價方法이 理想的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採用될 可能性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이 理想論을 達成하는 現實的인 可能性을 間接評價方法(indirect valuation)에서 求하려고 하였다. 「캔닝」이 主張하는 間接評價法이란 어느 程度의 競爭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에 市場에서의 資產(財貨)價格은 大多數의 獨立的인 個個人이 想定한 未來利益의 流入에 立脚하여 決定될 수 있다는 것을前提로 한 것이다. 이 경우의 市場價格은 客觀性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間接的인 方法에 의하여 資產을 評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경우 모든 商品에 대한 市場이 形成되어 있다고 하면 株式이나 社債는 株式市場에서豫想現在價值를 求할수 있고 其他在庫商品이나 設備에 대해서는 去來者간에 使用되는 價格票(catalogues)에서 그리고 建物이나 土地와 같은 不動產은 不動產 市場에서 그의 現在價值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營業權(goodwill)을 제외한 이와같은 資產이나 負債는 一定期間동안에 이루한 企業의 純價值의 增加인 利益을 算出하기 위하여 每期 이와같은 間接的인 方法을 使用할 수 있다(이와같은 方法으로 企業의 純利益을 決定된다면 營業權은 恒常一定하다는 것을前提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캔닝」(J.B. Canning)은 問題로 되어 있는 營業權까지도 보다 正確한 企業의 純利益을 計算하기 위하여 評價한것을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이 營業權을 評價하기 위해서는 企業全體의 直接的인 評價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고 하는것은 이미 前述한 바와 같다.

여하튼 以上에서 본 資產의 間接的인 評價方法이 어느 程度 純利益의 推定을 可能하게 하고 있진 하지만 會計學에서는 推想的인 未來價格을 利益測定의 基準으로 삼을 것을 拋棄하고 「原價」(cost)를 일반적 測定基準으로 삼고 있다. 直接評價方法이나 間接評價方法은 그 方法에 있어서는 어느程度의 差異가 있지만 이것은 다같이 未來의 推定值로서 客觀的인 價值을 갖는것이 못된다고 하는데 그 原因이 있다.(그러나 時價가 原價를 下廻하는 경우에는 原價를 拋棄하고 時價를 그 評價基準으로 삼고 있는例外도 있다)⁽¹⁴⁾

그러면 다음에는 會計學의 利益概念으로서 原價主義에 立脚한 評價方法을 再吟味하여 보기로 한다.

VII. 會計學의 利益概念

종래 會計學에서 일반적 行으로 사용되어 오던 資產評價의 方法은 資產을 前述한 現在價值로서 評價하여 資產價值의 純增加概念으로서 企業利益을 認識하지 않고 資產을 購入할 當時에 適用되었던 原價로서 評價하여 이것으로 부터 企業利益을 認識把握하는 基礎로 삼아 왔다. 더구나 物價가 變動하여 原價와 價值가 顯隔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까지도 市價가 原價를 下廻하지 않는限 原價主義에 立腳한 評價方法을 徹底하게 고집하고 있다. 즉 會計學에서의 資產評價는 資產의 購入에 支給 또는 支給할 金額(原價)으로서 評價하게 되며 諸費用으로서 在庫商品의 賣出에 대해서는 購入한 定價로서 計算하고 前支給費用項目에 대해서는 消費된 原價로서 計算하며 建物 設備등에 대해서는 原價를 基礎로 한 減價償却額등을 각각의 費用으로 하는 原價主義에 따른 評價方法을 擇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收益에 대해서도 資產이 處分 또는 賣出될 때 받아드리는 또는 받아드릴 金額으로 收益을 認識하게 된다. 이와같은 收益과 費用의 期間的 對應過程을 거쳐 企業利益이 確定되게 된다. 따라서 會計學의 企業利益concept은 “當期에 實現된 收益에서 當期에 發生한 費用을 差減한것”이라고 할 수 있다.

原價가 會計에 있어서 評價의 基準으로 使用하는 理由에는 그 나름의 主張이 있다. 그의一般的理由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수 있다.⁽¹⁵⁾

- ① 會計는 實際去來의 數值만을 記錄하려 한다.

(14)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 第四章 五節의 資產의 評價原則에서도 『低價主義의 特例』로서 “在庫財產에 관하여서는 그 時價가 取得原價보다 低落할 경우에는 時價에 의하여 評價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15) *Accountants, Handbook*, Edited by W.A. Paton, 3rd ed. 1949, p.805.

- ② 原價는 檢證可能한 客觀的 事實이다.
- ③ 原價는 投資者의 捉出額을 表示한다.
- ④ 未實現增加의 認識은 配當決定을 不適當하게 한다.
- ⑤ 再評價는 個人的 判斷에 立脚한 推定이다.
- ⑥ 時價의 繼續的 適用은 反復的인 調整을 必要로 한다.
- ⑦ 代替價格은 決定하기 困難할 뿐 아니라 그 自體 意味가 없다.

이와같은 諸點들이 資產의 評價에 있어 原價主義의 優位性을 端的으로 表示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附加的 說明을 하면 우선 原價는 實際의 去來事實이 뒷받침 하고 있는데 反해서 現在價值는 單純한 推定에 불과한 것이다. 嚴密한 意味에서 取得後의 資產은 市場을 喪失하고 말게 된다. 資產이 市場에 있는 동안에는 時價가 存在할 수 있으나 일단 그 資產을 購入하게 되면 그 資產의 現在價值는 評價人에 의해서 推定하는以外에는 決定될 수 없다. 특히 複雜한 工場設備의 경우에는 그것이 最近의 것과 改良된 型의 設備와 技術的으로 嚴密하게 一致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大部分의 경우 現存設備는 數十年 또는 그 以上의 歲月을 經過하여 陳腐化 또는 半陳腐化하기 때문에 그의 經濟的價值를 決定한다는 것은 大端히 困難한 것이다. 오늘날 企業利益을 測定하는데 있어서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의해서도 評價人の 意見에 따라 막대한 企業利益의 差異를 나타내게 되는데⁽¹⁶⁾ 推定된 現在價值에 따라 企業利益을 算定한다고 하면 그 推定利益은 評價人の 意見에 따라 막대한 差額을 내게 될것이며 따라서 이 數値은 無意味한 것이 될것이다.

(16) R.N. Anthony; *Management Accounting-Text and cases*-Irwin inc., 3rd ed., 1964, p.262.

Mr. Leonard Spacek, managing partner of Arthur Anderson and Company, illustrates this point with the following comparison between the reported earnings of two hypothetical companies, with the same revenue, and the same physical operations. Company A reports a net profit of \$480,000, and Company B reports a net profit of \$1,076,000. The difference of \$596,000 is explained entirely by differences in accounting practices, as follows:

1. Company B uses Fifo in pricing inventory; Company A uses Lifo.....	\$192,000
2. Company B uses accelerated depreciation; Company A uses straightline.....	48,000
3. Company B capitalizes research costs and amortizes over years; Company A expenses on incurrence.....	38,000
4. Company B charges the present value of pensions vested; Company A expense actual current pension costs.....	72,000
5. Company B rents stock options to executives, which are not an expense; Company A pays a cash bonus.....	96,000
6. Company B credits capital gains to income; Comapany A credits them directly to retained earnings.....	150,000
Total	\$596,000

이런 意味에서 原價는 比較的 客觀性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市場에서 買賣雙方이 合理的인 判斷을 行使하여 利害가 相反된 兩者的 合意에 到達한 價額이 原價이므로 來라고 하는 事實에 의해서 檢證될 수 있는 客觀性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客觀的이라고 함은 事實을 個人的인 偏見에서 歪曲되지 않게 表現하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客觀的證據라는 것은 非個人的인 것으로서 그 當事者の 根據없는 意見 또는 希望과 對照的으로 가장 關係가 깊은 當事者에게는 外의인 證據인 것이다”⁽¹⁷⁾ (“Objective” as used here relates to the expression of facts without distortion from personal bias……“Objective evidence” therefore is evidence which is impersonal and external to the person most concerned in contrast with that person’s unsupported opinion or desire.) 이에 反해서 現在價值는 個人的인 意見인 동시에 推定值이기 때문에 主觀的인 價值이며 또한 未實現評價인 관계도 事實에 立脚하여 檢證할 수가 없는 것이다. 檢證할 수 있는 客觀的證據(verifiable, objective evidence)를 重視하는 現代企業會計는 原價를 評價의 基礎로 하고 있는 것은 當然한 事實이다. 따라서 帳簿記入定價는 客觀的으로 決定된 資料라고 할 수 있으며 推定된 現在價格은 多分히 個人的인 意見에 그 基礎를 두고 있다.

둘째로 現代企業會計에서 現在價值에 의한 評價方法을 採擇하지 않고 原價에 의한 評價法을 사용하는 것은 現在價值라는 것은 推定額이기 때문에 极히 不確實하며 現在價值를 決定하는데 많은 困難性이 隨伴된다는데 있다. 會計期末마다 繼續的으로 現在價值의 增減에 따라 再評價한다고 하는 것은 그 手續이 複雜할 뿐 아니라 많은 費用을 要하는 作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와같은 評價作業은 企業會計의 모든 記錄이 混亂을 초래하게 된다. 極端的인 表現을 하면 會計記錄의 繼續性이 全然喪失되고 말게 된다.

이에 대해서 會計學에서는 企業實體의 觀點에서 原價는 投資된 것이며 計算된 危險으로 본다. 그리하여 企業會計의 機能을 過去의 營業活動의 報告라고 하는 點에서 볼 때 過去에 실제로 投下된 原價가 가장 有用한 資料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틀頓」(A.C. Littleton)이 밝힌 바와 같이 “經營은 過去의 努力を 含味하는 能力を 갖지 않으면 안되며 그러기 위한 尺度로서는 投下原價 以外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다”.⁽¹⁸⁾

企業利益은 結論的으로 말해서 收益에서 收益을 얻기 위해서 消費된 費用을 差減하여 求한다. 이것은 經濟學의 意味의 企業利益이나 또는 會計學의 意味의 企業利益이나 다를

(17) W.A. Paton & A.C. Littleton;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AA monograph No.3 1967, p.19.

(18) A.C. Littleton; “Significance of invested cost” *Accounting Review*, April 1952, p.167.

바 없다. 다만 現在까지는 企業利益을 認識하는데 主로 費用의 側面에서 觀察하였으므로 다음에는 收益의 側面에서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 收益에 관한 문제도 여지껏 보아온 客觀的證據나 不確實性이라고 하는 基本的思考의 差異에서 相異한 概念 및 測定方法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선 理解할 必要가 있다.

會計學에서 말하는 收益은 一般的으로는 販賣에 의하여 實現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原則的으로 價值의 增加는 商品의 時間的間隔, 場所的移動 또는 形成的過程에서 나타나지만 會計學에서는 이와같은 主觀的으로 價值가 增加되었다는 推定만으로서 이것이 收益을 形成하지는 못한다. 이와같은 것이 收益이 되기 위해서는 客觀的으로 立證可能한 販賣라고 하는 事實이 實제로 發生하여 依로서 收益으로 認識되게 된다.⁽¹⁹⁾ 企業收益의 認識基準을 要約해보면 다음과 같다.⁽²⁰⁾

- (1) Economic value must have been added by the firm to its product—revenue must have been earned.
- (2) The value of the revenue must be capable of measurement
- (3) Objective measurement must be available.
- (4) Related expenses must be capable of being estimated with a fair degree of accuracy.

(19)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1965, p.142.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의 예외도 있다. (1) (2) (4).

In general, accounting statements are improved if revenue is recognized at the earliest possible point after it is earned. The following tabulation summarizes the several recognition periods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recognition may be appropriate;

Time of Recognition	Conditions for Recognition	Examples
(1) During production	Establishment of a firm price based on contract or general business terms or existence of market prices at various stages of production.	Accruals; longterm contracts; accretion.
(2) At completion of production	Existence of a determinable selling price or stable market price. No substantial cost of marketing.	Precious metals; agricultural products; services.
(3) At time of sale	Established price for the product. Reasonable method for estimating amount collectible. Estimation of all material related expenses.	Most merchandies sales.
(4) At time of cash collection	Impossible to value assets received with fair degree of accuracy. Additional material expenses are likely, and these cannot be estimated with a fair degree of accuracy at the time of sale.	Installment sales; exchange for fixed asset without objectively determined value.

(20) Ibid., p.141.

이런 意味로서 企業利益을 파악하면 會計學上 企業利益은 實現된 收益과 消費된 原價의 概念으로 理解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意味에서는 會計學上 企業의 利益은 貨幣의 價值와는 關係없는 貨幣的 剩餘分(money surplus)을 意味하게 된다. 이와같은 立場에서 企業이 所有하고 있는 資產은 未來의 加工 또는 發送을 待期하고 있는 移延費用으로서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現金이나 其他 貨幣資產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여하튼 企業會計에서 利益이라고 하면 實現된 收益과 이 收益을 낳기 위해서 消費된 原價가 對應되어 비로선 企業利益이 認識되게 된다. 이와같은 對應過程을 거쳐 經營成果와 努力이 確實하게 되며 企業의 收益力이 公開된다. 이와같이 收益과 費用을 對應하는데 있어 可能한 客觀的이고 確實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會計學에서는 諸種의 convention이나 rule을 適用하게 된다. 이것은 會計業務를 遂行해 나가는데 있어 어떤 特定人 또는 產業에서만 適用될 것이 아닌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에 立脚해야 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의 體系에 있어서 各樣의 異說이 있어 이를 體系的으로 統合하기 困難하나 企業會計를 遂行하는데 있어 一般的으로 遵守되어야 할 會計原則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統一會計期間(the uniform accounting period) 企業利益을 決定하기 위한 期間區分을 1個月 3個月 6個月 1年등안의 人爲的으로 區分한 期間을 使用하다.
- (2) 會計實體(the accounting entity) 會計業務가 이루어지는 制限된 活動領域을 말한다. 예를 들면 個人은 個人企業과 獨立된 立場에서 個人企業은 會計實體를 構成하며 組合은 組合員과, 株式會社는 株主와 「크립」이나 宗教團體는 構成員 그리고 各種 政府單位는 市民 또는 納稅者들과의 關係에서 會計實體와 各各 分離 獨立된 것으로 본다.
- (3) 繼續企業(the going concern) 會計實體가 그의 活動을 無限히 繼續한다고 하는 假定이다. 그러므로 清算價值(企業이 清算될 때 會計學에서의 評價基準)는 考慮에 두지 않는다.
- (4) 完全公開(full disclosure) 財務報告書 利用者の 意思決定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財務的資料 및 事件은 會計實體와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各階層에 公開되어야 한다고 하는 信念.
- (5) 重要性(materiality) 重要하지 않는 金額을 取扱하는데 많은 神經을 쓸 필요가 없다는 會計實務上의 「룰」(rule) 그러나 金額上으로 큰 項目에 대해서는 적절한 取扱이 要望된다.
- (6) 一貫性(consistency) 會計의 各期마다 一貫性있는 會計處理를 함으로서 信憑性있는

比較를 할 수 있다는 것.

- (7) 保守主義(conservatism) 會計實務에서 過度한 樂觀主義를 除去하여 堅實한 會計를 實施한다는 것. 이것은 資產 및 收益을 理解하는데 있어 存在할 수 있는 數個의 價值 中에서 最下의 價值를 擇하고 費用 및 負債의 경우는 最高의 價值를 그 認識의 對象 으로 한다.
- (8) 收益의 實現(realization of revenue) 收益의 認識은 收益으로 實現될 때 까지 保留 한다는 會計實務로서 收益은 市場에서 去來가 發生하여 이것이 所有者「에퀴티」(owners' equity)의 增加로서 나타났을 때 그 實現된 것으로 본다. 이의 典型的인 예 는 商品이 發送되었을 때를 그 基準으로 삼고 있다(이의 예외적 事項에 대해서는 註 (19) 參考).
- (9) 收益費用의 對應(the matching of expenses against revenue) 會計期間別로 利益을 決定하기 위해서는 會計期間에 實現된 收益에 同期間동안에 發生한 費用을 적절히 對應시켜야 한다.
- (10) 原價主義評價(the cost basis of valuation) 資產을 評價함에 있어 取得原價에 立脚 해야 한다는 것이다. 原價主義評價法이 資產의 市場價值가 原價를 下廻하는 경우에는 保守主義와 衝突하게 되어 이를 修正해야 되는 것이다. 즉 低價主義(lower of cost or market)評價法을 使用하게 된다. 原價原則(cost principle)이 實現原則(realization principle)과 結合되어 “豫想되는 利益은 計上하지 않으며豫想되는 損失을 모두 計上한다”(anticipate no gains; provide for all losses)는 金言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 (11) 安定貨幣單位(the stable monetary unit) 一般物價水準이 一定하다고 하는 假定.

會計學에서의 企業利益은 以上에 羅列한 諸原則에 立脚하여 測定한 것이다. 이와같은 會計의 諸原則은 數世紀에 걸쳐 會計實務가 이루어지는 동안 나타난 貫行으로서 自然科學의 分野에서 말하는 原則과는 그 意味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리틀頓」은 以上과 같은 會計學에서 使用되고 있는 原則은 “一般的으로 會計와 같은 人間用役에 의한 制度(human-service institution)에는 存在할 수 없는 普遍妥當性과 恒久性을 示唆하는것”⁽²¹⁾이 라고 하여 原則이란 用語 대신 ‘基準’(standards)이란 말은 使用하고 있다. 여하튼 企業利益의 會計學上概念은 經濟學에서 追求하는 概念과는 달리 人間用役에 의한 制度의 所產이

(21) W.A. Paton & A.C. Littleton;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AA 1940) p. 4.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人間에 의하여 制度化된 이 會計原則은 어디까지나 會計實務의 基準으로서의 意味를 갖게 되는것이지 恒久的인 眞理를 保障하고 있지는 않다. 人類의 歷史와 더불어 會計原則은 꾸준한 變遷을 經驗하게 될것이며 이에따라 새로운 世界의 새로운 會計原則은 現在會計學에서의 企業利益概念을 變貌시킬 것이다.

VII. 結 言

眞正한 意味에서 企業利益은 企業의 營業活動이 完全히 終熄되어 清算할 때에야 비로소 確正될수 있다. 즉 營業活動을 위해서 最初에 投入된 經濟價值와 一定期間동안 營業活動을 하고 난 뒤에 企業을 處分한 뒤의 經濟價值와의 比較에서 營業活動期間의 價值의 增加分으로서 企業利益이 認識 把握된다. 이 경우에 營業活動期間에 나타난 追加投資와 引出된 經濟價值의 修正을 하여야 함을 말할 必要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 企業은 大部分의 경우 無限한 生命을 가지고 있는 繼續企業으로 認識되고 있는 것이 普通이다. 企業의 生命이 無限히 繼續된다고 하는 實體로 企業을 理解할때 經營政策의 意味에서 經濟成果에 대한 測定을 無限하게 保留할 수는 없다. 그러나 企業이란 生命體가 終熄되기 以前에 任意로 一定期間을 區分하여 期間利益을 測定한다는 데에는 避할 수 없는 態意性이 介在하게 된다. 이로부터 真正한 意味의 企業利益은 測定하기 困難하게 된다. 비록 企業이 無限한 生命力を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人爲的期間區分에 따라 經濟活動의 成果에 대한 測定은 人間의 經濟活動을 測定하여야 한다고 하는 現實的要求에 부딪치게 되면 臨時的이나마 企業利益의 測定은 不可避한 것이 된다.

臨意的인 期間測定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意見은 決코 統一되어 있지 않다. 價值論에 立脚하여 未來의 收益力を 現在價值로 割引하여 企業利益을 理解하려는 經濟學의 企業利益概念은 오랫동안 會計學의 王座를 지켜오는 過去의 價值 즉 原價를 中心으로한 企業利益을 認識하려는 見解와 恒常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企業이라고 하는 同一한 實體를 對象으로 그의 經濟的 成果를 測定하는데 있어 이와같은 差異點을 露呈하게 되는 原因은 經濟學에서는 未來指向的인(forward-looking) 思考에 立脚한 主觀價值를 重視하는데 反해서 會計學에서는 過去指向的인(backward-looking) 思考에 立腳한 客觀的 價值에 보다 興味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相異한 見解는 企業의 損益計算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나 財政狀態를 測定하는데 있어 現實的으로 많은 差異를 示見하게 된다.

會計學에서 客觀性을 重視하는 理由에는 무엇보다도 企業과 關聯된 異質的인 利害關係者들의 利害가 相衝되어 있기 때문이다. 經營者 投資者(未來의) 株主 債權者 其他 政府各

機關은 各者가 相異한 立場에서 企業의 損益 및 財政狀態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때 어
면 相反된 利害關係者들에게 客觀的立場에서 企業에 關한 情報를 提供할 수 있는 것은 客
觀的으로 立證可能한 價值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비록 時間의 經過 場所의 移動 및 形成
過程에 따라 어떤 資產의 價值가 變動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客觀的으로 測定하기란 困難
하다. 未來의 收益力を 現在價值로 換算하여 企業利益을 測定하는 것은 理論的으로 正確
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未來의 收益力を 推定하여야 한다는 點과 또 어느 程度의 利率로서
어느 期間만큼 貢獻할 것인가에 대한 推定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測定人の 慷意
性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會計學은 現實의in 問題解決을 위하여 計定이라는 特殊한 方法을 通해 會計學
에서 規定한 原則에 立脚하여 企業利益을 測定하게 된다. 그러므로 “會計는 그것이 立脚
하고 있는 一般的 眞理에 따라 形成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어떤 自然의in 法則을 基礎
로 하여 形成된것도 아닌것”⁽²²⁾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近來에 會計學界에 새로운 會計學의 領域이 臺頭하게 되어 종래 會計學과 經濟
學의 유리되었된 距離를 훨씬 좁혀주고 있다. 이것은 管理會計(management accounting)
에서 찾을수 있다. “會計學의 主要目的이 費用과 收益을 對應하는 組織의in 手續에 의해
서 期間利益을 測定하여”⁽²³⁾ 外部報告目的에 利用할 경우에는 會計의 客觀性은 會計業務을
遂行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遵守하여야 할 基準이라 하겠다. 그러나 經營計劃이나 統制를
目標로 하고 있는 管理會計에서는 未來經營意思決定을 위한 經濟學의 理論의 뒷받침을 必
要로 하고 있다. 종래의 財務會計의 接近과 管理會計의 理論의 融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現存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經濟理論을 背景으로 하고 會計學의 歷史的 變遷과 融
合된 속에서 會計理論이 建設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完成된 會計理論이 意見決定에
대한 指針으로서 理想의in 理論構造를 갖추게 될것이다.

(22) Accountants' Handbook; (The Ronald Press Company, 4 th ed). p.1.

(23) W.A. Paton & A.C Littleton; op. cit., p.123.

<Summary>

Business income concept in Economics and Accounting

JHONG HO LEE

Résumé

Both accountants and economists have been constantly discussed on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business income. Economists complain that accountants are too mechanical and their procedures are not based on sound principle; accountants charge that economists are too idealistic and their concepts are impractical in calculating business income. The present paper is intended to make a brief comparision of business income in accounting and economics, hoping that this analysis will bring mutual understanding and thus benefit the future development of both fields.

The computation of business income has been the central core of financial accounting since the development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in the 1930's. In review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ccounting since about 1930, we see that the income statement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the balance sheet.

Both accounting and economics, especially in microeconomics, study the problems of business enterprise. Accounting field of study concentrates on recording, gathering, classifying and interpreting historical accounting data for an entity in conventional meaning of accounting, and highly developed field of economics theory of the firm deals with pricing, production, capital valuation and profits.

Since the relationship is so close, one would naturally expect accountants to use portions of economic theory as they guides. Certainly two important measurement problems are common to both fields; the determination of net income(similar to the economic term profits), and the determination of financial position (similar to the economic term wealth, or capital value).

Even though accountants and economists are concerned with the same problems,

Author: Research Member, the Institute of Management Reserach,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cept of business income and the calculation of it lead them quite different way.

Economic theory of business income is entirely based on the theory of value. Assets have value because they are scarce and are capable of rendering future services to their owners. Since most items are scarce, the important measurement is the value of the services which the item will yield. Therefore, the monetary value of an asset's future services must be determined in order to calculate its value. This should be done at the end of each accounting period, in order to properly determine financial position. Simply stated, the value of an asset in economic theory is the discounted value of its future income stream. Finding this value involves the use of actuarial interest calculations. The procedure is: first determine the amount of income the asset will produce in each future period; next decide what rate of interest the asset should earn; then, discount each future income amount back to the present. An asset's value is the sum of the present values of the entire future income stream. Along these lines, economic concepts of business income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balance sheet side: income is the increase in wealth from profit-seeking operations; here wealth is measured at current value, the income statement side.....income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revenues and the current cost of the services consumed(expenses) in earning the revenues.

On the contrary, accounting practices of business income calculation is mainly based on the past and objective cost data. So the accounting concepts of business income is generally conceived as the residual from matching revenue realized against costs consumed. It is a money concept, measured periodically for a specific firm through the tool of the income statement. Revenue is recognized mostly on the basis of sales. Expenses or costs consumed are measured on the basis of original cash (or equivalent) prices arrived at between two independent parties. Costs accrue as time passes, but income from the sale of a unit of merchandise appears all at once. Once the total sales revenue is determined, the remaining job of the accountant is to divide the stream of costs incurred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What is assigned to current revenue becomes expenses or costs consumed and appears on the income statement; what is deferred for future revenue remains as assets and appears on the balance sheet. "Objectivity" and "accuracy" are specifically emphasized. Many conventions and doctrines are introduced to meet this standard. The

resulting income is, thus, made reasonably definite and certain.

The underlying theory of this accounting concept of business income is summarized as follows: accounting income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venue realized and costs consumed. It is a flow of money surplus irrespective of the worth of money. Under this theory, assets on hand are viewed as deferred costs waiting for future conversion and delivery. This is true even with cash and other money assets. The main task of income accounting is to match revenue realized against costs consumed in generating the revenue. In this matching process, the management accomplishments and efforts are brought in to the center and the earning power of the firm is, thereby, disclosed. In order to make the matching as objective and definite as possible, the accountant follows certain conventions and rules. Income so measured is simply ".....the figure that results when the accountant has finished applying the procedures which he adopts.

Economists have studied the difficult problems of measuring profit and capital for several centuries, and accountants have benefited from that prolonged study as shown by recent developments in cost and managerial accounting. Nevertheless, much in accounting theory remains aloof from economics. The centr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that economic theory recognizes that business decisions are forward-looking whereas accounting theory deals mainly with measurement of financial history. Economists, for example, say that profits are earned when sales revenues exceed the current costs of producing and selling goods; accountants say that profits are earned when revenues exceed the past costs of producing and seeing goods. Similarly, economists say an item (or a business) is worth the present value of its future income, whereas accountants argue that an item should not be shown at more than it originally cost. Such differences arise because economists are willing to make estimates of the future, whereas accountants insist on using only verifiable historical figures.

As professor D.A. Corbin stated, a revolution in accounting is in process, co-operated with economists' prolonged study on income, accountants are building a new field of accounting—management accounting. The revolution is only partly complete, however, because the economists' "forward-looking" approach, found in the field of managerial accounting, has not yet been widely adopted in the area of financial accounting.